

1. 문제유형 파악하기	
총 4개의 논술 문제	
1) 인문논술형 문제 - [문제 1], [문제 2]	
2016 모의논술	
[문제 1]	[문제 2]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된 주제 의식과 <제시문 2>의 주제 의식을 각각 서술 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분류하고, <제시문 2>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공통논지 도출 후 두 제시문 요약형'	'요약 후 비판형'
2015 토요일 오전	
[문제 1]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 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2>에 제시된 입장에 근거해서 <자료 1>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공통논지 도출 후 두 제시문 요약형'	'요약 후 비판형'
2015 토요일 오후	
[문제 1]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설명 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1>의 관점에서 <자료 2>가 지적한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공통논지 도출 후 두 제시문 요약형'	'요약 후 비판형'
2015 일요일 오전	
[문제 1]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 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공통논지 도출 후 두 제시문 요약형'	'요약 후 비판형'
2015 일요일 오후	
[문제 1]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 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2>에 근거하여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공통논지 도출 후 두 제시문 요약형'	'요약 후 비판형'
2015 모의 논술	
[문제 1]	[문제 2]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 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공통논지 도출 후 두 제시문 요약형'	'요약 후 비판형'

2) 자료해석형 문제 - [문제 3], [문제 4]	
2016 모의논술	
[문제 3]	[문제 4]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 지식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십시오. (400자 내외, 180점)	<제시문 4>의 예측에 관한 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그림 1>에서 찾아 그 이유를 밝히고, 이와 더불어 <그림 1>과 <표 1>을 바탕으로 2009년과 2013년의 권역별 자료를 비교하여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추론하십시오. (500자 내외, 210점)
‘두 자료 비교·분석형’	‘자료의 타당성 검토형’
2015 토요일 오전	
[문제 3]	[문제 4]
<자료 3>에 제시된 “인간 및 시민” 범주의 전제와 <자료 4>의 실험대상 아동에게 기대되는 응답에 깔려있는 전제를 각각 밝히고, 해당 전제가 바뀌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각각 논하십시오. (400자 내외, 180점)	<자료 5>에서 영어가 조만간 인터넷 언어 1위 자리를 중국어에 내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를 표에 의거하여 밝히고, 그 예측의 타당성 여부를 <자료 3>과 <자료 4>에서의 전제의 역할을 고려하여 논하십시오. (500자 내외, 210점)
‘두 자료 비교·분석형’	‘자료의 타당성 검토형’
2015 토요일 오후	
[문제 3]	[문제 4]
<자료 3>과 <자료 4>를 가치관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십시오. (400자 내외, 180점)	<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에 입각하여 해석한 후, <자료 5-나>의 주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하에 초·중·고별로 추론해 보십시오. (500자 내외, 210점)
‘두 자료 비교·분석형’	‘자료의 타당성 검토형’
2015 일요일 오전	
[문제 3]	[문제 4]
<자료 3>과 <자료 4>를 프레임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십시오. (400자 내외, 180점)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5>에 제시된 체이스와 사이먼의 주장을 그래프의 수치를 근거로 논하십시오. (500자 내외, 210점)
‘두 자료 비교·분석형’	‘자료의 타당성 검토형’
2015 일요일 오후	
[문제 3]	[문제 4]
<자료 3>과 <자료 4>를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판단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십시오. (400자 내외, 180점)	<자료 5>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료 3>의 현상을 해석·추론하십시오. (500자 내외, 210점)

‘두 자료 비교·분석형’	‘자료의 타당성 검토형’
2015 모의 논술	
[문제 3]	[문제 4]
<자료 3>과 <자료 4>를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분석 하시오. (400자 내외)	<자료 3>의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자료 5>에서 사용된 범주화 방법,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한 방법에 적용하여 상상/맥락 조건하에서 컵과 그릇의 범주화를 재시도해 보시오. (500자 내외)
‘두 자료 비교·분석형’	‘자료의 타당성 검토형’

2. [문제 1], [문제 2] 공략		
['공통논제 도출 후 두 제시문 요약형' , '요약 후 비판형']		
1) [문제 1 공략] - '공통논제 도출 후 두 제시문 요약형'		
1)-1 전형적 답안구조 [1문단, 3문장]		
①	제시문 A와 B의 공통논제를 밝혀주세요.	
②	제시문 A의 핵심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요약비교]	
③	제시문 B의 핵심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요약비교]	
1)-2 TIP		
①	어차피 한 문장으로 각 제시문을 요약할 것이므로 지엽적인 부분에 주목하지 말고 가급적 주제가 나오는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만을 읽고 바로 답안을 작성하자. 그리고 영어지문이 나온다고 해도 겁먹지 마라. 어차피 세세한 내용까지 알아야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한 문장으로 요약할거니까.	
②	대부분의 경우 공통논제를 기준으로 상반된 입장으로 두 제시문이 나뉜다. 예를 들어 두 제시문의 공통논제가 햄버거라면 A제시문은 햄버거가 좋다, B제시문은 햄버거가 나쁘다라는 식이다. 따라서 한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한 후 나머지 제시 문은 이와 상반된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1)-3 한국외대 모범답안과의 비교		
①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 논제는 '상황 인식과 대응 태도'이다.	
②	<제시문 1> (가)와 (나)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 태 도에 괴리를 느낀다.	
③	반면 <제시문 2>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관이나 회피 대신 행 동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바로 지금이 행동을 취할 적 기라고 말한다.	
2) [문제 2 공략] - '요약 후 비판형'		
2)-1 전형적 답안구조 [1문단, 7문장]		
대 상	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인 B를 요약하시오.
	②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제시문인 B를 요약하시오.
기 준	③	비판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인 A를 요약하시오.
	④	비판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인 A를 요약하시오.
비 판	⑤	제시문 A를 바탕으로 B를 비판하시오.
	⑥	제시문 A를 바탕으로 B를 비판하시오.
	⑦	제시문 A를 바탕으로 B를 비판하시오.
2)-2 TIP		
①	[문제 1]만큼의 정형성은 없으니 꼭 위와 같은 형식으로 답안을 쓸 필요는 없다. 위는 단지 수험생의 평균 문장길이인 70자를 고려하여 한국외대 2번 문제에 적합 한 기본구조를 도출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②	다면적 사고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면적 비판보다는 2개 이상의 기준으로써 비판하는 것이 좋다.
③	이미 [문제 1]에서 각각 요약한 제시문들이므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 1]의 연속선상에서 풀면 된다.

3) 실전연습1 - 2016 모의 논술	
[문제 1]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된 주제 의식과 <제시문 2>의 주제 의식을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분류하고, <제시문 2>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제시문 1>	<p>(가)</p> <p>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 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p> <p>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越南)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p> <p>[중략]</p> <p>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p> <p>[하략]</p> <p style="text-align: right;">- 김수영,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 -</p> <p>(나)</p> <p>열두 살은 아직도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나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낮의 기억들이 은근히 의식의 굴절과 마비를 강요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그대로 편입될 수는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기에는 그때껏 내가 길들어 온 원리 - 어른들 식으로 말하면 합리와 자유 - 에 너무도 그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중략] 하지만 싸운다는 것도 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그러했고, 누구와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고, 무엇을 놓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다. 뚜렷한 것은 다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뿐 - 다시 한 번 어른들 식으로 표현한다면,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는 확신뿐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p>

	<p>응은 그때의 내게는 아직 무리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p>
<p>한 문장 요약</p>	<p><제시문 1> (가)와 (나)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에 괴리를 느낀다.</p>
<p><제시문 2></p>	<p>Let us do something, while we have the chance! It is not every day that we are needed. Not indeed that we personally are needed. Others would meet the case equally well, if not better. To all mankind they were addressed, those cries for help still ringing in our ears! But at this place, at this moment of time, all mankind is us, whether we like it or not. Let us make the most of it, before it is too late! Let us represent worthily for one the foul brood to which a cruel fate consigned* us! What do you say? It is true that when with folded arms we weigh the pros and cons we are no less a credit to our species. The tiger bounds to the help of his congeners* without the least reflection, or else he slinks* away into the depths of the thickets*. But that is not the question. What are we doing here, that is the question. And we are blessed in this, that we happen to know the answer.</p> <p>* consign: 위임하다, 할당하다 * congener: 동종의 동식물 * thicket: 덤불 * slink: 살며시 도망치다</p> <p style="text-align: right;">- 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 -</p>
<p>독해</p>	<p>기회가 왔으니 그동안에 무엇이든 하자. 우리 같은 놈들을 필요로 한다는 게 노상 있는 일은 아니거든. 꼭 우리보고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놈들이라도 우리만큼은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소리는 인간 전체에게 한 말이겠지만, 지금 이 자리 지금 순간엔 우리 둘 뿐이니까 싫건 좋건 그 인간이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해.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이번 한번이라도 의젓하게 그 인간이란 족속의 대표가 돼보잔 말이다. 어때 하기가 팔짱을 끼고 가부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도 우리 인간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호랑이는 아무 생각도 안하고 제 동족을 구하러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깊은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기도 하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게지. 우린 다행히도 그 답을 알고 있거든.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2>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관이나 회피 대신 행동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바로 지금이 행동을 취할 적기라고 말한다.
[문제 1] 답안작성 [1문단, 3문장]		
①	공통 문제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 문제는 ‘상황 인식과 대응 태도’이다.
②	A 요약	<제시문 1> (가)와 (나)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에 괴리를 느낀다.
②	B 요약	반면 <제시문 2>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관이나 회피 대신 행동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바로 지금이 행동을 취할 적기라고 말한다.
[문제 2] 답안작성		
①	대상	<제시문 1> (가) 화자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고민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 방관자적 혹은 회피적 태도를 취한다.
②	기준	<제시문 2>에서 언급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은 1) 적기 행동 대처 2) 고민과 관망으로 일관 3) 즉각 (무모하게 혹은 본능적으로) 행동 대처 4) 상황 회피 등이다. 이 중 1)과 3)은 적극적 대응 방식, 2)와 4)는 소극적 대응 방식으로 분류된다. <제시문 2>의 화자는 2)와 4)의 소극적 대응 방식 대신 1)과 3)에 해당하는 적극적 대응 방식을 지지하는데, 특히 1)의 적기 행동 대처를 주장한다.
③	비판	<제시문 2> 화자의 적극적인 주된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은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만 하거나 회피하는 소극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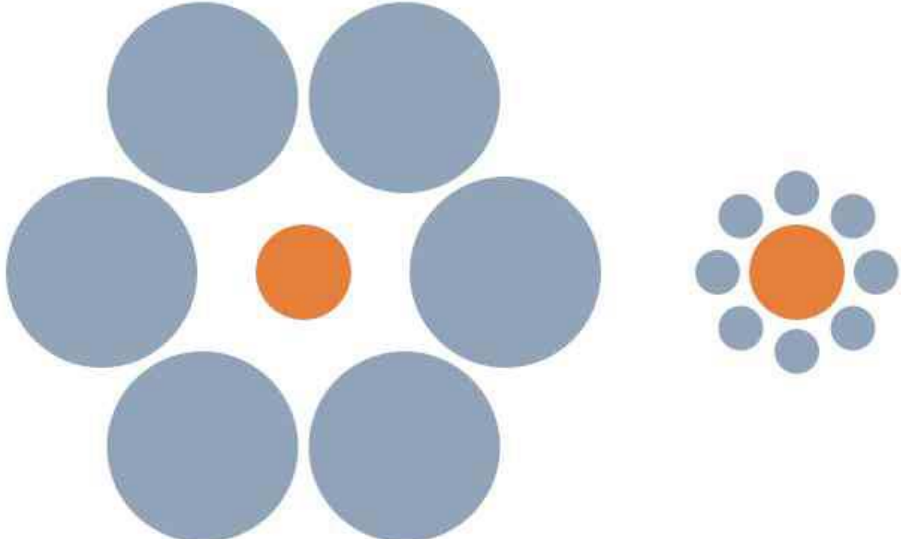
4) 실전연습2 - 2015 토요일 오전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2>에 제시된 입장에 근거해서 <자료 1>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1>	<p>According to Carlo Ginzburg, the potential of human beings to experience authentic feelings of pity and guilt is greatly determined by the distance of human beings to the particular object, namely, the distance in actual historical time, the distance in physical space, and the distance in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ubjects. He introduces Aristotle's famous remark on this topic: "The persons men pity are those whom they know. Men also pity those who resemble them in age, character, habit, and position." He also examines how the moral implications of distance have been explored in literature. Such effects are clearly shown in passages like "We agree that perhaps distance in space weakened all feelings and all sorts of guilty conscience, even of crime" (Diderot, Conversation of a Father with his Children), and "In India the English are killing thousands of men as good as we are; and at this moment the most charming woman is there being burnt, but you have had coffee for breakfast all the same?" (Balzac, Father Goriot).</p> <p style="text-align: right;">Matthew Wylie, "Moral Crime and Moral Punishment"</p>
독해	<p>카를로 긴즈부르그에 의하면, 인간이 진정한 연민이나 죄책감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가는 상당부분 그 대상과의 거리 - 실제 역사적 시간상의 거리, 물리적 공간상의 거리, 그리고 유사성의 거리에 - 에 의해 좌우된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을 소개한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또한 사람들은 나이, 성격, 습관, 지위가 유사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는 또한 문학에서 거리의 도덕적 함의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도 탐구한다. 그런 효과는 다음과 같은 문학작품의 구절들에서 잘 들어난다. "어쩌면 공간적 거리가 모든 종류의 감정과 모든 종류의 죄책감, 심지어는 범죄에 대한 것도 약화시켰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디드로, 『아버지와 자식들의 대화』). "인도에서는 영국인들이 우리처럼 선량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너 무나도 매력적인 여인이 그곳에서 불타 죽는 이 순간 당신은 평소와 같이 모닝커피를 마신 거지요" (발자크 『고리오영감』).</p>
한 문장 요약	<자료 1>은 아리스토텔레스, 디드로, 발자크의 말을 인용하며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의 감정이 그 대상과의 거리에 멀어짐에 따라 약화된다고 말한다.
<자료 2>	"무엇 때문에 내가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지 이제부터 너에게 설명해 줄게. 내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류 전반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차라리

	<p>어린이들의 고통만을 다루는 편이 낫겠어. 이렇게 하면 내 논의의 규모가 열 배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말이야. (...) 너는 이게 이해가 되니, 아직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짐작할 수 없는 어린 존재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다고 치자. 그 아이가 어둡고 추운 더러운 곳에서 조막만한 주먹으로 자신의 찢어진 가슴을 치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 자기를 보호해 달라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온순한 피눈물을 흘린다면 – 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너는 이해하겠니. (...)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보다 더 명확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린이들만을 예로 들었던 거야. 지표면에서부터 중심부에까지 이 땅을 흠뻑 적시고 있는 인류의 나머지 눈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일부러 내 주제를 축소한 거야. (...) 골백번이나 반복하건대 – 문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그저 어린이들만을 예로 들었던 것은 이로서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지기 때문이지.” (...)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만일 네가 결국에 가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네 손으로 직접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겨우 단 하나의 조막만한 창조물을, 뭐 예컨대 작은 주먹으로 가슴을 찢던 그 어린애와 같은 창조물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고, 그 아이의 고통 어린 눈물 위에 그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너라면 이런 조건에서 건축가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아니, 동의하지 않을거야. (...)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입장권을 반납하려는 거야. 나는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에게 그 입장권을 극히 정중하게 반납하는 거야.”</p> <p style="text-align: right;">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p>
<p>한 문장 요약</p>	<p><자료 2>의 등장인물은 이 세상에는 ‘어린이들의 고통’이 존재하고, 그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대변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 한 ‘그 위에 세워진’ 신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반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p>
<p>[문제 1] 답안작성 [1문단, 3문장]</p>	
<p>①</p>	<p>공통 문제</p> <p><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 논제는 ‘거리가 도덕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다.</p>
<p>②</p>	<p>A 요약</p> <p><자료 1>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의 감정이 그 대상과의 거리에 멀어짐에 따라 약화된다고 말한다.</p>
<p>②</p>	<p>B 요약</p> <p>반면 <자료 2>의 등장인물은 이 세상에는 ‘어린이들의 고통’이 존재하는 한 ‘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거리와 상관없이 도덕적 연민’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p>
<p>[문제 2] 답안작성</p>	
<p>①</p>	<p>대상</p> <p><자료 1>은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의 ‘감정이 그 대상의 물리적 거리’에 멀어짐에 따라 약화된다고 말한다.</p>

②	기준	<p><자료 2>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이는 ‘감정이 그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전달된다는 입장이다. <자료 2>는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세우는데 ‘단 한 명의 어린 아이의 고통’이라도 요구된다면 그 건축물을 거부하겠다고 말한다.</p>
③	비판	<p><자료 2>를 바탕으로 <자료 1>을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자료 1>의 관점은 지구촌사회에서 물리적 거리에 따라 공감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둘째, <자료 1>의 관점을 따를 때 인류는 자신과 근거리에 있는 문제에만 신경을 쓰게 되므로 사회적,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에는 무관심해질 수 있다. 셋째, 도덕, 즉 타인을 향한 연민과 죄의식은 거리와 상관없이 윤리적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되어야만 한다.</p>

5) 실전연습3 - 2015 토요일 오후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1>의 관점에서 <자료 2>가 지적한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p><자료 1></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는 원을 통해 인간의 착시 현상을 조명하였다. 주어진 그림은 동일한 크기의 원이라도 주변을 둘러싼 다른 원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감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과정은 순수 논리나 계산에 의한 추리방식과는 다르다. 인간은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 주변상황이나 세상사와 같은 사전지식에 근거해 하향식으로(top-down) 사물이나 현상을 수용하여 창의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해결에는 각 요소에 하나씩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p> <p>독일의 심리학자 볼프강 쾰러(Wolfgang Köhler)는 하향식 사고방식에 결정적 열쇠가 되는 통찰(insight)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쾰러는 자신이 설계한 실험에서 철장 안 침팬지의 행동을 관찰했다. 철장 속 천장에는 바나나를 매달아 놓고 바닥에는 몇 개의 상자를 여기저기 흩어놓았다. 침팬지는 바나나를 따기 위해 갖은 애를 써보다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살핀 뒤, 한쪽구석에 놓인 상자를 보고는 그것들을 옮겨 차례로 쌓아 올린 뒤 결국 바나나를 손에 넣었다. 이 실험결과를 보면 바나나와 상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침팬지는 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켰다. 쾰러는 이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침팬지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침팬지는 바로 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쾰러는 이것을 통찰이라고 하였다.</p> <p>우리는 급속도로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대상과 사태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때 통찰력의 부재는 이러한 파편들에 대처</p>
---------------------	--

	<p>하는 사고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만다. 개별 사실들이 그럴듯한 즉 유의미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상황 고유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외적인 세계의 객관적 사실들에 앞서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사전지식과 경험,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는 통찰이야말로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결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p>
<p>한 문장 요약</p>	<p>Wolfgang Köler, Die Aufgabe der Gestaltpsychologie 외 <자료 1>은 게슈탈트 심리학과 통찰을 중심으로 하향식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객관적인 개별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에서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만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강조한다.</p>
<p><자료 2></p>	<p>Social stereotypes are often formed initially from specific experiences or from observations of one or more individuals. These specific impressions become a stereotype when this information is then generalized to apply to all members of a group, regardless of circumstances. This creates difficulties when circumstances change but the stereotype does not, or when a stereotype is used as a substitute for gather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a person. For example, a friend of mine once reported an experience that his 6-year-old son had at school. The teacher had asked the children to draw a picture of their fathers relaxing. When the teacher saw the boy drawing a picture of a man chopping wood, she said, "No, I said draw him relaxing." Bursting into tears, the 6-year-old exclaimed, "But my daddy does chop wood to relax!" In fact, his father's work involved sitting at a desk all day long. The teacher's stereotype, not the boy's drawing, was the problem. Stereotypes, as top-down mental schemas*, can lead us to prejudge others—and all schemas carry this risk of distorting reality.</p> <p>The likelihood that we will recognize such distortions is reduced by a phenomenon called confirmation bias**. Generally, we tend to focus on information that confirms our beliefs and ignore potentially contradictory information. Ironically, the more confident we are in our beliefs, the more likely is the danger of distortion, because we are less likely to look for information that might reveal our errors. Thus, a doctor with 30 years of experience is less likely to recognize when he has made a diagnostic error than a newly-graduated intern—since greater experience instills greater confidence.</p> <p>* schema: 도식(圖式) ** confirmation bias: 확증편향(確證偏向)</p>

		Glassman E. William, Approaches to Psychology
독해	<p>사회적 고정관념은 흔히 처음에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의 관찰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가 일반화되어 상황에 관계없이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때, 이러한 특정 생각이나 느낌은 고정관념이 된다. 상황이 변하는데 그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을 때, 또는 고정관념이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대신 사용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언젠가 한 친구가 자신의 여섯 살 된 아들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을 말해 주었다. 아들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편히 쉬는 모습을 그려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교사는 아이가 나무를 자르고 있는 남자를 그리고 있음을 보고는 '아니지. 내가 아빠가 쉬고 있는 모습을 그리라고 했잖니.' 라고 말했다.</p> <p>그 여섯 살 된 사내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근데 우리 아빠는 쉬시기 위해 정말 나무를 잘라요!'라고 외쳤다. 실은 그 아이 아빠의 '일'이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었다. 그 사내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그 교사의 고정관념이 문제였던 것이다. 하향식 도식으로서의 고정관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속단할 수 있게 하며, '모든' 도식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수반한다.</p> <p>우리가 이러한 왜곡을 인식할 가능성은 '확증편향'이라는 현상에 의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정보에 집중하는 반면에, 그 믿음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 이러니하게도 확신이 강하게 들수록 왜곡의 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오류를 드러낼 정보를 찾아내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0년 경력의 의사가 최근에 졸업한 인턴보다 오진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는데, 왜냐하면 경험이 많을수록 그 만큼 자신감이 커지기 때문이다.</p>	
한 문장 요약	<p><자료 2>는 통찰의 결여로 인해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오류나 왜곡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즉 사전지식의 편의성 및 효율성에 과도하게 의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왜곡과 오류 발생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p>	
[문제 1] 답안작성 [1문단, 3문장]		
①	공통 논제	<자료 1> 과 < 자료 2> 의 공통 논제는 '하향식 사고방식'이다.
②	A 요약	<자료 1>은 사고과정에서 객관적인 개별사실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존 지식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개별사실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②	B 요약	<자료 2>는 통찰의 결여로 인해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오류나 왜곡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 즉 사전지식의 편의성 및 효율성에 과도하게 의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왜곡과 오류 발생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 2] 답안작성		
①	대상	<자료 2>는 고정관념은 과거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일반화되어 고착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결국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②	기준	<p><자료 1>은 객관적인 개별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에서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만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강조한다.</p>
③	비판	<p><자료 1>의 관점에서 볼 때 <자료 2>의 고정관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 첫째, <자료 1>에서 통찰과 같은 하향식의 사고 과정이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자료 2>의 고정관념이나 확증편향은 반대로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오류나 왜곡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둘째, <자료 1>에서 통찰을 통해 개별사실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자료 2>의 경우 사전지식의 편의성 및 효율성에 과도하게 의지함으로써 개별사실들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자료 1>의 하향식 문제해결은 개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만, <자료 2>의 고정관념은 이와 같은 중간과정의 부재로 왜곡이나 오해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p>

6) 실전연습4 - 2015 일요일 오전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1>	<p>In Seligman and Maier's experiment, two groups of dogs were placed in harnesses. Each dog in Group 1 was intentionally subjected to pain by being given electric shocks, which the dog could end by pressing a lever. Each dog in Group 2 received electric shocks of identical intensity and duration, but pressing a lever did not stop the shocks. For the dogs in Group 2, the shock was apparently inescapable. While the dogs in Group 1 quickly recovered from the experience, the dogs in Group 2 learned to be helpless and exhibited symptoms similar to chronic clinical depression.</p> <p>The cause of learned helplessness*, according to Seligman, is the repeated exposure to an uncontrollable event. After many repeated and failed attempts to accomplish something while being in an uncontrollable event, your brain learns that success is beyond your control and that you cannot affect the outcome. Once conditioned to this belief, you give up hope and effort, even when later exposed to a similar event where control is possible. In effect, you've learned to become helpless.</p> <p>*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p> <p style="text-align: right;">Education Portal 외</p>
독해	<p>셀리그만과 메이어는 실험에서 두 그룹의 개들을 줄에 묶어 두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했는데, 이 충격은 개가 레버를 누르면 멈추게 된다. 두 번째 그룹의 개들도 같은 강도와 같은 시간 동안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레버를 눌러도 충격이 멈추지 않는다. 이 그룹의 개들에게 그 충격은 피할 수 없는 충격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이 경험에서 빠르게 회복된 반면,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무기력을 학습했고, 만성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다. 셀리그만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라 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반복된 시도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성공은 통제 밖에 있으며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뇌가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에 빠지게 되면, 통제가 가능한 유사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희망과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즉,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된다.</p>
한 문장 요약	<p><자료 1>의 그룹2의 개는 동일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나 스스로는 어떤 반응으로도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무기력을 학습했고, 만성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p>

<p><자료 2></p>	<p>1963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동물 대상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로젠탈은 실험심리학 전공 학생들에게 “미로 바보”라 이름 붙인 쥐들과 “미로 수재”라 이름 붙인 쥐들을 제공한 뒤, “미로 바보” 쥐들은 학습 효과가 없는 쥐들이지만, “미로 수재” 쥐들은 처음에 보통 쥐와 비슷한 것 같아도 금방 학습 효과를 보이는 똑똑한 쥐들이라고 얘기해 줬다. 사실, 두 종류의 쥐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쥐들이었다. 5일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미로 수재” 쥐들이 실제로 미로 통과 과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학습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로젠탈은 “미로 수재” 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미로 수재”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가 결과의 결정요인임을 발견했다.</p> <p>이어지는 연구에서 로젠탈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퍼센트 정도의 학생을 뽑았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하였다. 8개월 후 이전과 동일한 지능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p> <p style="text-align: right;">Robert Tauber, Self-Fulfilling Prophecy</p>
<p>한 문장 요약</p>	<p><자료 2>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한 미로 통과 실험에서 연구자가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쥐들의 학습 성과가 달라지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대할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이 실험의 의미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p>
<p>[문제 1] 답안작성 [1문단, 3문장]</p>	
<p>①</p>	<p>공통 문제</p> <p><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논제는 ‘학습’이다.</p>
<p>②</p>	<p>A 요약</p> <p><자료 1>의 그룹2의 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무기력을 학습했는데, 이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p>
<p>②</p>	<p>B 요약</p> <p><자료 2>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소개하며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p>
<p>[문제 2] 답안작성</p>	
<p>①</p>	<p>대상</p> <p><자료 2>에서는 쥐를 대상으로 한 미로 통과 실험에서 연구자가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쥐들의 학습 성과가 달라지며, 교육</p>

		현장에서 학생을 대할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이 실험의 의미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②	기준	<자료 1>은 동물 실험을 통해 한계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때 그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포기과 절망에 빠진다는 ‘학습된 무기력’의 실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자료 1>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③	비판	<자료 1>에 따를 때 <자료 2>에 제시된 효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능력과 상관없이 칭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신이 노력을 하든 안하든 반복적으로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되기에 진정한 학습능력의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7) 실전연습5 - 2015 일요일 오후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2>에 근거하여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1>	<p>캐시 데이빗슨(Cathy N. Davidson)은 최근 저서에서, “인터넷이 아이들의 정서개발에 해로울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문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및 학습 환경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데이빗슨이 이 질문에 대해 제시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을 세상에 대한 준비를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시킬 수는 없다”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의 번성을 마흔이 넘은 어른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용성을 무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위계적인 억압은 결국 문화전반에 대한 파괴행위나 다름없다.</p> <p>어른들은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보려는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길고 지루한 고전 소설책을 던져주거나 유치한 정치코미디 사이트에 접속하는 아이들의 컴퓨터를 꺼버리면서 감동적인 고전 영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행위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세계에 대해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때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던 먼지 쌓인 고전 소설책이나 아날로그 기기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언젠가 다시 그 가치가 부각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고전문학 호사가나 전통문화 평론가들만이 관심을 가질 작품일 뿐이다. 반면에 디지털영상이나 정치풍자 웹사이트는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유쾌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스마트한 전자책 덕분에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독을 즐기며 잊었던 독서 취미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p> <p>물리적 공간이라는 교실의 개념 또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이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료를 순식간에 불러올 수 있고 교사와 학생이 늘 함께 머무는 가상공간이 주어진다면, 굳이 새벽에 눈발이 날릴 때 통학버스가 올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 지금보다 한층 진화한 기기들을 통해 교사와 각 학생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지각하는 학생의 문 여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과 주의력이 빼앗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상교실에서 두 시간의 집중이 열흘 동안의 현실세계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양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이제는 믿어지지 않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Virginia Heffernan, New York Times</p>
한 문장 요약	<자료 1>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교실도 디지털 가상공간의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과 속도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료 2>	Computers and their associated technologies are awesome additions to a culture and are quite capable of altering the way we think. But like all important technologies of the past, there are controversies

	<p>related to the pros and cons. It is shocking that in the twenty-first century, we can still talk of new technologies as if they were gifts from the gods. Don't we all know what the combustion engine* has done for us and against us? What television is doing for us and against us? At the very least, we need to discuss about what our kids will lose, and what we will lose, if they enter a world in which computer technology is their chief source of motivation, authority, and psychological sustenance**. Will they become more impressed by calculation than human judgment? Will speed of response become, more than ever, a defining quality of intelligence? Is virtual reality a new form of therapy?</p> <p>Robert Fulghum, in his recent book, elegantly summarized what technology advocates overlooked and left out: share everything, play fair, don't hit people, put things back where you found them, clean up your own mess, an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We have ample evidence that it takes many years of teaching such social values in school before they have been accepted and internalized. That is why it won't do for children to learn in "settings of their own choosing." That is also why schools require children to be in a certain place at a certain time and to follow certain rules, like raising their hands when they wish to speak, not talking when others are talking, not chewing gum, not leaving until the bell rings, and exhibiting patience toward slower learners. This process is called making civilized people. The god of technology does not appear interested in this function of schools. At least, it does not come up much when technology's virtues are only emphasized.</p> <p>* combustion engine: 연소기관 ** sustenance: 영양분</p> <p style="text-align: right;">Neil Postman, Virtual Students, Digital Classroom</p>
<p style="text-align: center;">독해</p>	<p>컴퓨터 및 이와 관련되는 기술은 현대 문명의 환상적인 확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주요 신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신기술도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논란이 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신기술을 마치 신이 내린 은총인 것처럼 여기는 점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연소기관 엔진이 인간에게 주고 있는 혜택과 폐해를 잊었던 말인가?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준 혜택과 폐해가 무엇이었던가? 컴퓨터 기술이라는 것이 주된 일의 동기가 되고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로 작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심리적인 영양분이 될 때, 적어도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한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과연 인간의 판단보다 기계의 계산력에 더 감동하게 될 것인가? 응답의 속도가 지능을 정의하는 시대가 온 것인가? 가상현</p>

		<p>실이 사람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치유법이라도 된 것인가. 로버트 풀검 (Robert Fulghum)은 최근 저서에서 신기술의 주창자들이 간과하고 생략해 버린 가치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나누어 갖고, 공평하게 놓고,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며, 가지고 논 것은 제자리에 갖다놓고, 어질러 놓은 건 치우고,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할 것 등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이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에는 몇 해가 걸린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학생들을 그들이 원하는 학습 환경에서만 교육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학교의 공간에 있어야 하고, 수업 중 발언하고 싶을 때 손을 들어야 하며, 타인이 얘기중일 때는 끼어들지 않고, 수업 중에 껌을 씹어서는 안 되며, 벨이 울릴 때까지 나갈 수 없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등의 특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학교가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문명화된 인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불린다. 전지전능한 신기술이 이러한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적어도 신기술의 미덕이 강조되었을 때 이런 기능과 관련되는 내용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p>
한 문장 요약		<p><자료 2>에서는 신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인간성의 확립에 바탕을 둔 사회적인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다.</p>
[문제 1] 답안작성 [1문단, 3문장]		
①	공통 문제	<p><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 논지는 ‘학교 교육의 역할’이다.</p>
②	A 요약	<p><자료 1>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p>
②	B 요약	<p><자료 2>에서는 신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인간성의 확립에 바탕을 둔 사회적인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다.</p>
[문제 2] 답안작성		
①	대상	<p><자료 1>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며, 교실도 디지털 가상 공간의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과 속도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p>
②	기준	<p><자료 2>는 학생들에게 기계/디지털을 통한 편의성보다는 인간성, 사회성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p>
③	비판	<p><자료 2>에 따를 때 <자료 1>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학교는 사회적 효율성만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공간인데, 효율성만을 위해 학생들에게 기계/디지털을 통한 학습을 중시하다 보면 학생들의 인간성 및 사회성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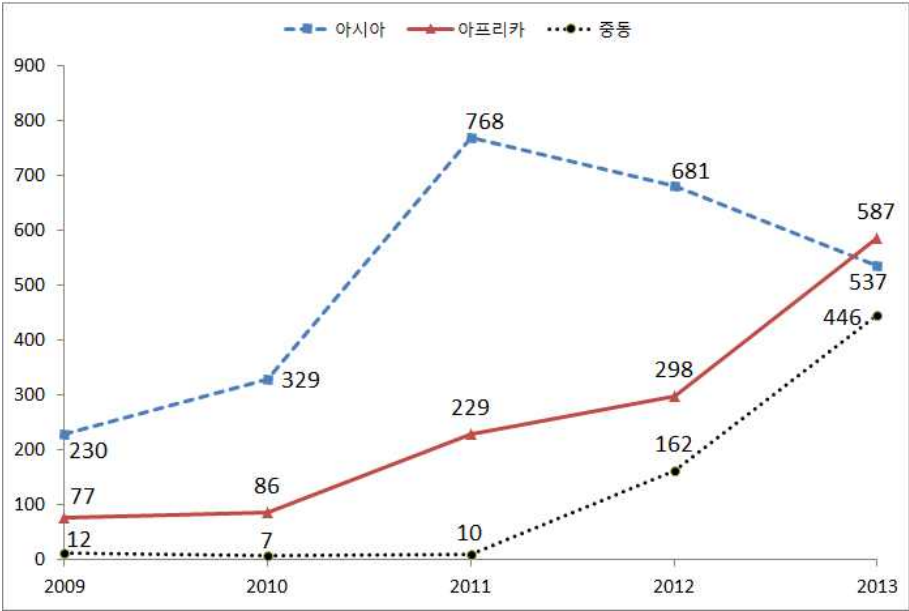
8) 실전연습6 - 2015 모의 논술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제시문 1>	<p>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1863년 유럽에 처음 등장한 기차를 타본 뒤 극심한 전율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당시 기차는 시속 30~40km에 불과했지만 마차보다 3배나 빨랐다. 주변 풍경을 음미할 여유 따위의 여행 과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목적지만 남는 것을 경험한 하이네는 “철도가 공간을 살해했다.”는 명언을 남겼다. 철도 여행으로 상징되는 속도가 인간의 일상과 의식, 문화, 심리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견한 것이다. 밀란 쿤테라는 그의 소설 『느림』에서 “자본주의와 느림은 상극이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만연은 사람에게 속도를 강요했다고 갈파했다. 19세기 이후 기계에 의한 동력이 개발되면서 사람은 ‘속도’라는 효율에 갇혀 ‘느림’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p> <p>각박해진 세상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에도 속도감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걸음 속도가 10여 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영국 허트포드셔대학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팀은 최근 세계 32개 도시 사람들의 걸음 속도를 측정해 1994년 조사 때보다 평균 10%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60피트(약 18m)를 걷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3.76초에서 12.49초로 1초 이상 빨라진 것이다. 한편 걸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극심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용’ 국가였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보행자들은 60피트를 10.55초에 걸어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1994년 세계인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캘리포니아대학 로버트 레빈 교수는 “사람은 빨리 움직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작아지며 심장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p> <p>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압축적인 근대화를 달성한 한국의 경우 ‘속도’에 대한 집착은 눈에 띄는 현상이다. 급속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던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성장만능주의와 결합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최대의 선박생산국, 세계 최대의 컴퓨터 D램 생산판매국 등 좋은 성적도 거두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 행복지수 순위 102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식 속도전’의 문제점을 깨닫고 삶의 인간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속도가 아닌 느림의 미학에 관해 다시 생각할 때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일보> 기사 일부 수정</p>
한 문장 요약	<자료 1>은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요구가 인간적 가치나 행복감의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보고 지속가능성과 느림의 미학으로의 방향전환을 요청한다.
<제시문 2>	One thing that distinguishes the new economy from the old one is ‘speed.’ To succeed on the digital playing field, where speed plays a critical role, global companies must move closer to fulfilling

	<p>customers' demands in real time. As such, the ability to analyze information rapidly to establish timely corporate policies is essential. Traditional hierarchical decision-making is too slow to cope with the realities of the new digital market. Most existing knowledge management and reporting systems are not geared to support high-speed business activities. To compete in a market filled with greater volatility* and uncertainty, all companies need to be nimble** and fast. Global firms, in particular, will need to speed up their business and adjust processes, strategies and business models as events unfold. In a world where markets are in perpetual flux, product development and sourcing strategies must realign more quickly. The key to success in new global economy lies in speed which enables a business to effectively deal with rapidly changing realities.</p> <p>* 불안정성, 변동성 ** 재빠른, 민첩한,</p> <p>- Oxford Economics, The New Digital Economy</p>
<p>독해</p>	<p>신경제를 구경제와 구분해주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스피드'이다. 스피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층 더 다가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기업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위계질서에 따른 전통적인 의사결정은 너무 느려서 새로운 디지털 마켓의 현실에 대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지식경영과 보고체계는 빠른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조이다. 점증하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은 사업 전개과정 중이라도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프로세스, 전략 및 비즈니스모델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p> <p>변화무쌍한 글로벌 무대에서 상품개발 및 자원조달전략은 한층 더 빠르게 재편되어야 한다. 글로벌 신경제하에서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는 급변하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스피드인 것이다.</p>
<p>한 문장 요약</p>	<p><자료 2>는 디지털 신경제 하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빠른 속도이며 따라서 급변하는 현실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
<p>[문제 1] 답안작성 [1문단, 3문장]</p>	
<p>①</p>	<p>공통 문제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문제는 '속도'이다.</p>
<p>②</p>	<p>A 요약 <자료 1>은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요구가 인간적 가치나 행복감의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보고 지속가능성과 느낌의 미학으로의 방향전환을 요청한다.</p>

②	B 요약	반면 <자료 2>는 디지털 신경제 하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빠른 속도이며 따라서 급변하는 현실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 2] 답안작성 [1문단, 7문장]		
①	대상	자본주의식 속도의 논리가 인간을 압박하여 인간적 가치와 행복감의 저하를 불러왔다는 <자료 1>의 논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압축적 근대화를 이룩한 한국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②	기준	그러나 디지털 신경제 체제 하에서 빠른 속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자료 2>의 논지에서 볼 때 <자료 1>의 주장은 한계를 지닌다.
③	비판	급변하는 현실과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 체제에서 빠른 속도는 더욱더 중요해졌다. 현실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글로벌 신경제 하에서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다.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느낌의 미학이 갖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그것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달리는 기차의 가속페달에서 무작정 발을 뗀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장의 동력을 끊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로 퇴행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3. [문제 3], [문제 4] 공략	
[‘두 자료 비교·분석형’ , ‘자료의 타당성 검토형’]	
1) [문제 3 공략] - ‘두 자료 비교·분석형’	
1)-1 전형적 답안구조 [1문단, 6문장 - 수험생평균문장 길이 70자로 환산]	
①	A라는 기준으로 두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
	A라는 기준으로 두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
②	B라는 기준으로 두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
	B라는 기준으로 두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
③	C라는 기준으로 두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
	C라는 기준으로 두 자료의 차이점을 비교
1)-2 TIP	
①	단면적 비교로는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3개의 기준으로써 두 자료를 비교 및 분석해야 한다.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 없다. 어차피 학교 측에서 제시를 해주기 때문이다. 아래의 모범답안에서 나오는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 획득 지식의 신뢰성,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이라는 기준은 문제에서 직접 제시된 것이다.]
1)-3 한국외대 모범답안과의 비교	
①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제시문 3>은 사실을 검증한 법칙이며 예측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반면, <제시문 4>에서 관찰 자료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에 근거한 예측은 우리의 기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오류 가능성이 높다.
②	획득 지식의 신뢰성 측면에서 <제시문 3>은 획득한 지식이 관측의 결과와도 잘 일치했고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 <제시문 4>는 관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빗나갈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③	따라서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제시문 3>은 케플러가 구축한 모델은 관측의 결과 즉 실제 현상과 일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제시문 4>에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식획득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 [문제4 공략] - ‘자료의 타당성 검토형’	
2)-1 TIP	
①	문제 4번은 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정형성은 있으나 그 외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문제유형의 일관성이 없기에 최대한 많은 기출로써 자료해석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3) 실전연습1 - 2016 모의 논술	
[문제 3]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 지식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의 예측에 관한 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그림 1>에서 찾아 그 이유를 밝히고, 이와 더불어 <그림 1>과 <표 1>을 바탕으로 2009년과 2013년의 권역별 자료를 비교하여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제시문 3>	<p>케플러는 행성이 원이나 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궤도를 따라 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코페르니쿠스는 한결같이 원 궤도를 고집했지만 케플러는 그 점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케플러가 지적한 코페르니쿠스의 잘못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성들은 정확한 원 궤도를 따라 돈다. 둘째, 행성들은 일정한 속도로 돈다. 셋째, 태양은 이들 원 궤도의 중심에 있다.</p> <p>코페르니쿠스는 위의 세 가정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화성과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케플러는 종래의 선입견과 가정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행성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태양계 모델을 구축했다.</p> <p>[중략]</p> <p>케플러 이전에는 어쩌서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원운동을 신성하고 완벽한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탓에 천문학자들이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행성 궤도가 원에 가까운 타원형이어서 면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원 궤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p> <p>케플러의 타원 궤도는 관측의 결과와 잘 일치했으며,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의 결론은 과학과 과학적 방법, 즉 관측과 가설 그리고 수학을 결합하여 얻어 낸 승리였다.</p> <p>- 「EBS 수능완성 국어B형」 -</p>
제시문 분석	<제시문 3>은 지식획득 과정을 기존 지식(가정)의 부정-새로운 가정 제시-오류의 수정-예측 가능성으로 설명한다. 검증 과정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신뢰할 만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본다.
<제시문 4>	<p>귀납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검증되면 일반적인 법칙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법칙을 토대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즉 귀납의 원리는 어떤 일정한 형식의 연속이나 공존이 이제까지 자주 반복되었다면 같은 조건에서는 언제나 그런 연속이나 공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p> <p>그러나 귀납이 정말로 믿을 만한 지식 획득의 방법일까?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귀납적 방법의 난점을 간단한 일화를 통해 지적하였다. 닭 주인이 닭에게 매일 오전 9시에 모이를 주자 닭은 오랜 관찰에 근거한 귀납 추론을 통해 ‘주인은 언제나 오전 9시에 모이를 준다.’라는 법칙을 발견한다.</p>

	<p>그리고 주인집에 사위가 찾아온 날 오전 9시에 주인이 들어오자 닭은 그 법칙에 근거해서 ‘오늘도 주인은 모이를 준다.’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주인은 모이를 주는 대신 사위를 위해 닭의 목을 비틀어 버린다. [중략]</p> <p>귀납의 원리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전 시대의 철학자 흄의 주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략] 흄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찰해 온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똑같은 방식의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중략] 그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정당화가 전혀 없다. 흄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습관일 뿐이다. 곧 과학을 특별하게 만드는 귀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당화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우리 인간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인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 뿐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B형」 -</p>																								
<p>제시문 분석</p>	<p>< 제시문 4 > 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획득한 개별적 사실로부터 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일반화는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무력화되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p>																								
<p><자료 1></p>	<p><그림 1> 한국으로의 권역별 난민 신청자 추이 (단위: 명)</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연도</th> <th>아시아</th> <th>아프리카</th> <th>중동</th> </tr> </thead> <tbody> <tr> <td>2009</td> <td>230</td> <td>77</td> <td>12</td> </tr> <tr> <td>2010</td> <td>329</td> <td>86</td> <td>7</td> </tr> <tr> <td>2011</td> <td>768</td> <td>229</td> <td>10</td> </tr> <tr> <td>2012</td> <td>681</td> <td>298</td> <td>162</td> </tr> <tr> <td>2013</td> <td>537</td> <td>587</td> <td>446</td> </tr> </tbody> </table> <p>출처 : 2009~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대한민국 법무부)</p> <p><표 1> 한국 정부가 승인한 권역별 난민 인정자 추이 (단위: 명)</p>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2009	230	77	12	2010	329	86	7	2011	768	229	10	2012	681	298	162	2013	537	587	446
연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2009	230	77	12																						
2010	329	86	7																						
2011	768	229	10																						
2012	681	298	162																						
2013	537	587	446																						

권역 \ 연도	2009년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59	28	28	37
아프리카	11	19	25	19	17
중동	4	6	0	6	8
전체 인정자	74	47	42	60	57

출처 : 2009~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대한민국 법무부)

자료 분석
 <그림 1>은 한국으로의 권역별 난민 신청자 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고, <표1>은 한국 정부가 승인한 권역별 난민 인정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두 자료는 법무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 3] 답안작성

- ①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제시문 3>은 사실을 검증한 법칙이며 예측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반면, <제시문 4>에서 관찰 자료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에 근거한 예측은 우리의 기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오류 가능성이 높다.
- ② 획득 지식의 신뢰성 측면에서 <제시문 3>은 획득한 지식이 관측의 결과와도 잘 일치했고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 <제시문 4>는 관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빗나갈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 ③ 따라서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제시문 3>은 케플러가 구축한 모델은 관측의 결과 즉 실제 현상과 일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제시문 4>에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식획득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 4] 답안작성

- ① <그림 1>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2012년 권역별 난민 신청자를 예측한다면, 아시아 출신의 신청자 수는 증가하고 중동 출신의 신청자 수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아시아는 감소했고 중동은 상승했다. 이러한 점에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흠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이와 더불어 2009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비교하여 우리 정부의 난민인정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자. 여기서 '난민 인정 태도의 변화'란 난민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입장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는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 인정자의 비율, 즉 난민 인정률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2009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권역별 난민 인정률은 각각 $\frac{59}{230}$, $\frac{11}{77}$, $\frac{4}{12}$ 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각각 $\frac{38}{537}$, $\frac{17}{587}$, $\frac{8}{446}$ 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2013년 모든 권역에 대한 난민 인정률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이 상당히 인색해졌

음을 알 수 있다.

4) 실전연습2 - 2015 토요일 오전	
[문제 3]	<자료 3>에 제시된 “인간 및 시민” 범주의 전제와 <자료 4>의 실험대상 아동에게 기대되는 응답에 깔려있는 전제를 각각 밝히고, 해당 전제가 바뀌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각각 논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5>에서 영어가 조만간 인터넷 언어 1위 자리를 중국어에 내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를 표에 의거하여 밝히고, 그 예측의 타당성 여부를 <자료 3>과 <자료 4>에서의 전제의 역할을 고려하여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3>	<p>1789년 프랑스대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 집단은 뚜렷한 공통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념적 기초는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식화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이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이었고, 그 안에는 그들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전제되어 있었다. 같은 해에 발표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서에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한 부르주아의 구상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문건은 귀족 특권의 위계적 사회에 반대하는 선언이었지만, 인간 및 시민을 표방하는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그들 이외의 다른 사회 집단 - 무산계급, 여성 등 --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한 평등주의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 선언서에서 사유재산은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침범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전제되어 있다. 또한 법 앞에서 평등한 사람에게 출세의 가능성이 재능에 따라 평등하게 열려 있음도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적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재산소유자의 과두 정치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를 옹호했다. 이런 의미에서 1789년의 고전적·자유주의적 부르주아와 1789년에서 1848년 사이의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고, 납세자와 재산소유자에 의한 통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Eric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p>
자료 분석	1789년 프랑스대혁명 시기 발표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에 함축되어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과 이를 실현하고자한 핵심 주체인 부르주아 개념에 관한 글이다.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과 시민”은 제한된 사회 구성원만을 의미하고 있다. 천부인권과 법 앞의 평등을 내세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 부르주아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자연권으로 전제하는 재산소유자만을 의미했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는 완전한 평등 및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자료 4>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 예측,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바람, 믿음, 가식과 같은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 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심적 표상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능력은 유아에게서도 관찰된다.

	<p>예를 들어, 샬리가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해보자. 샬리가 없는 동안, 앤이 바구니에 있던 구슬을 꺼내 상자로 옮겼다. 실험에 참가한 아동이 이 상황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샬리가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구슬을 찾을지를 질문한다. 아동이 샬리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샬리가 구슬의 위치가 바뀐 것을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에게 보여준 영상에서는 앤의 개입으로 인해 샬리가 믿고 있는 구슬의 위치와 실제 구슬의 위치가 달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에 참가한 아동은 실제로 구슬이 상자에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샬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바구니를 열어볼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Michael Gazzaniga (ed.), The New Cognitive Neuroscience</p>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 분석</p>	<p>마음이론(theory of mind)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이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전제(assumption)’의 역할을 논하고 있는 글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 예측,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바람, 믿음, 가식과 같은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데, 실험에서 피험 아동은 앤의 개입으로 인해 샬리가 믿고 있는 구슬의 위치와 실제 구슬의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알면서도 샬리의 심리 상태에 기초하여 샬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바구니를 열 것이라고 대답한다는 내용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 5></p>	<p>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영어가 곧 인터넷 언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상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영어 사용 인구가 80퍼센트에 이른다고 보고되던 것이, 2001년 미국인터넷협회 자료에 따르면 45퍼센트 정도로 줄어들면서 인터넷 상에서 영어의 주도적 지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2010년 초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상위 10개 언어를 요약한 것이다. 영어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있으나 인터넷 사용자 수로 볼 때 중국어에 조만간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p> <table border="1" data-bbox="422 1489 1332 1989"> <thead> <tr> <th>언어</th> <th>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th> <th>인터넷 사용자 수 (단위 : 백만)</th> <th>인터넷 언어 성장률 (200~2009)</th> </tr> </thead> <tbody> <tr> <td>영어</td> <td>27.5</td> <td>496</td> <td>252</td> </tr> <tr> <td>중국어</td> <td>22.6</td> <td>408</td> <td>1,162</td> </tr> <tr> <td>스페인어</td> <td>7.8</td> <td>140</td> <td>669</td> </tr> <tr> <td>일본어</td> <td>5.3</td> <td>96</td> <td>104</td> </tr> <tr> <td>포르투갈어</td> <td>4.3</td> <td>78</td> <td>924</td> </tr> <tr> <td>독일어</td> <td>4.0</td> <td>72</td> <td>161</td> </tr> <tr> <td>아랍어</td> <td>3.3</td> <td>60</td> <td>2,298</td> </tr> <tr> <td>프랑스어</td> <td>3.2</td> <td>57</td> <td>375</td> </tr> <tr> <td>러시아어</td> <td>2.5</td> <td>45</td> <td>1,360</td> </tr> <tr> <td>한국어</td> <td>2.1</td> <td>37</td> <td>97</td> </tr> <tr> <td>기타 언어</td> <td>17.4</td> <td>314</td> <td>516</td> </tr> </tbody> </table>	언어	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인터넷 사용자 수 (단위 : 백만)	인터넷 언어 성장률 (200~2009)	영어	27.5	496	252	중국어	22.6	408	1,162	스페인어	7.8	140	669	일본어	5.3	96	104	포르투갈어	4.3	78	924	독일어	4.0	72	161	아랍어	3.3	60	2,298	프랑스어	3.2	57	375	러시아어	2.5	45	1,360	한국어	2.1	37	97	기타 언어	17.4	314	516
언어	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인터넷 사용자 수 (단위 : 백만)	인터넷 언어 성장률 (200~2009)																																														
영어	27.5	496	252																																														
중국어	22.6	408	1,162																																														
스페인어	7.8	140	669																																														
일본어	5.3	96	104																																														
포르투갈어	4.3	78	924																																														
독일어	4.0	72	161																																														
아랍어	3.3	60	2,298																																														
프랑스어	3.2	57	375																																														
러시아어	2.5	45	1,360																																														
한국어	2.1	37	97																																														
기타 언어	17.4	314	516																																														

	총계	100.0	1,802	-
	David Crystal, Internet Linguistics			
자료 분석	<p>‘인터넷 언어’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글로, 예측 및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그 배후에 깔린 ‘전제(assumption)’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한 자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영어가 곧 인터넷 언어라고 생각해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상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영어의 주도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p> <p>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상위 10개 언어를 요약하고, 영어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 수로 볼 때 조만간 중국어가 그 1위 자리를 장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p>			
[문제 3] 답안작성				
①	<p><자료 3>은 천부인권과 법 앞의 평등을 내세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 부르주아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자연권으로 전제하는 재산소유자만을 의미했다고 말한다.</p>			
②	<p>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는 완전한 평등 및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체제가 아니었기에 이 전제가 바뀌었다라면 완전한 평등 및 민주주의가 더 빨리 실현되었을 것이다.</p>			
③	<p><자료 4>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 예측,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바람, 믿음, 가식과 같은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p>			
④	<p>만약 <자료 4>의 전제가 바뀌었다라면 실험에서 피험 아동은 셸리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구슬이 위치하고 있는 상자로 셸리가 구슬을 찾으러 갈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p>			
[문제 4] 답안작성 [대학 제공]				
①	<p>제시된 표에서 2010년 현재 중국어 인터넷 사용자 수가 4억 8백만 명으로 영어 인터넷 사용자 4억 9천 6백 만 명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0년과 2009년 사이 영어(252%)와 중국어(1,162%)의 인터넷 언어 성장률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가 영어보다 4.6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인터넷상에서 조만간 중국어가 영어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p>			
②	<p>하지만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전제, 즉 인터넷 사용자 수를 통해 인터넷 언어를 파악할 수 있음에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 언어를 단순히 인터넷 사용자 수만을 가지고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어는 사용자 수뿐만이 아니라, 해당 언어로 운영되는 사이트 수, 해당 언어로 작성된 온라인 지널 말뭉치, 인터넷 사용자 별 사용 빈도와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할 때, 인터넷 언어 순위는 저자의 예측과 다르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예측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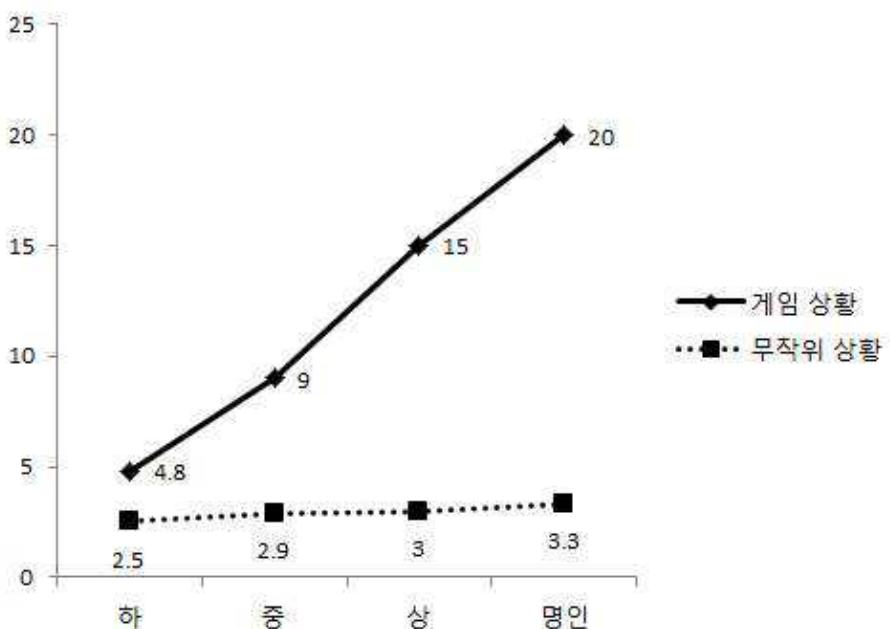
5) 실전연습3 - 2015 토요일 오후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가치관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에 입각하여 해석한 후, <자료 5-나>의 주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하에 초·중·고별로 추론해 보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3]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 colspan="3"><교사></th> <th colspan="3"><학부모></th> <th colspan="3"><학생></th> </tr> <tr> <th>교육목표</th> <th>초</th> <th>중</th> <th>고</th> <th>초</th> <th>중</th> <th>고</th> <th>초</th> <th>중</th> <th>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지식</td> <td>39.7</td> <td>37.3</td> <td>36.6</td> <td>54.8</td> <td>58.1</td> <td>56.1</td> <td>49.5</td> <td>35.2</td> <td>22.9</td> </tr> <tr> <td>도덕성</td> <td>53.0</td> <td>54.7</td> <td>56.9</td> <td>32.6</td> <td>30.5</td> <td>30.8</td> <td>23.7</td> <td>20.5</td> <td>14.5</td> </tr> <tr> <td>개성과 창조성</td> <td>5.9</td> <td>6.6</td> <td>3.4</td> <td>10.4</td> <td>9.4</td> <td>9.3</td> <td>17.7</td> <td>32.1</td> <td>42.9</td> </tr> <tr> <td>기타</td> <td>1.4</td> <td>1.4</td> <td>3.1</td> <td>2.2</td> <td>2.0</td> <td>3.8</td> <td>9.1</td> <td>12.2</td> <td>19.7</td> </tr> </tbody> </table>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목표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기본 지식	39.7	37.3	36.6	54.8	58.1	56.1	49.5	35.2	22.9	도덕성	53.0	54.7	56.9	32.6	30.5	30.8	23.7	20.5	14.5	개성과 창조성	5.9	6.6	3.4	10.4	9.4	9.3	17.7	32.1	42.9	기타	1.4	1.4	3.1	2.2	2.0	3.8	9.1	12.2	19.7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목표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기본 지식	39.7	37.3	36.6	54.8	58.1	56.1	49.5	35.2	22.9																																																			
	도덕성	53.0	54.7	56.9	32.6	30.5	30.8	23.7	20.5	14.5																																																			
개성과 창조성	5.9	6.6	3.4	10.4	9.4	9.3	17.7	32.1	42.9																																																				
기타	1.4	1.4	3.1	2.2	2.0	3.8	9.1	12.2	19.7																																																				
※ 9개 집단별 표본 크기는 동일함.																																																													
자료 분석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가 교사, 학부모, 학생 집단이 다를 것을 보여주는 표이다. 교사 집단은 '도덕성'을, 학부모 집단은 '기본 지식'을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교 교육목표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학생 집단만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집단과 같은 선호도를 보이다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집단과는 전혀 다르게 '개성과 창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료4]	<p>“선생님 서화는 예(藝)입니까, 법(法)입니까, 도(道)입니까” / “도(道)다.”</p> <p>“그럼 서예(書藝)라든가 서법(書法)이란 말은 왜 있습니까”</p> <p>“예는 도의 향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p> <p>“예가 지극하면 도에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는 도의 향이 아니라 도에 이르는 문이 아니겠습니까”</p> <p>“장인(匠人)들이 하는 소리다. 무엇이든 항상 도 안에 있어야 한다.”</p> <p>“그렇다면 글씨며 그림을 배우는 일도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겠군요”</p> <p>“그렇다. 그래서 왕우군(王右軍)은 비인부전(非人不傳)이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p> <p>이미 육순에 접어들어 늙음의 기색이 완연한 석담 선생은 거기서 문득 밝은 얼굴이 되어 일생을 불안하게 여겨 오던 제자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고죽은 끝내 그의 기대를 채워 주지 않았다.</p> <p>“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 예닐곱 살 난 학동들에게 붓을 쥐여</p>																																																												

	<p>자획을 그리게 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만약 글씨에 도가 앞선다면 죽기 전에 붓을 잡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p> <p>“기예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이 되고, 도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예술이 되고, 혼연히 합일 되면 예도가 된다.”</p> <p>“그것은 예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앞세워 예기(藝氣)를 억압하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 다 묶는 격이 아니겠습니까”</p> <p>그것은 석담 문하에 든 직후부터 반생에 이르는 고죽의 항변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석담 선생의 반응도 날카로웠다. 그를 받아들일 때부터의 불안이 결국 적중하고 만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으리라.</p> <p>“이놈, 네 부족한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을 애써 채우려 들지는 않고 도리어 요망스러운 말로 얼버무리려 하느냐? 학문은 도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경서(經書)에도 뜻이 없었고, 사장(詞章)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오직 붓끝과 손목만 연마하여 선인들의 오묘한 경지를 자못 여실하게 시능하고 있으니 어찌 천예(賤藝)와 다름이 있겠는가? 그래 놓고도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사람의 드높은 정신의 경지를 평하려들다니 뻔뻔스러운 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우군(王右軍): 서성(書聖)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진나라의 서예가 왕희지를 말함. * 비인부전(非人不傳):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 *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남을 뜻함. * 사장(詞章): 시가와 문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 <p style="text-align: right;">이문열, 금시조</p>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 분석</p>	<p>서화에 대한 사제 간의 관점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스승인 석담 선생은 서화에서 도(道)를 예(藝)나 법(法)보다 우선이며, 이 둘을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제자인 고죽은 이러한 스승의 생각에 반하며 수레와 소에 빗대어 예(藝)가 먼저고 도(道)가 뒤라는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 5></p>	<p>(가)</p> <p>언어학자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자들 중에서 한글이 남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테면 문자 창제의 과정과 원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이 유일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자는 이미 존재하는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소리 내는 데 관여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발음 작용을 본떠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혀소리), 순음(脣音, 입술소리), 치음(齒音, 잇소리),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로 만들었다. 모음은 우주 만물의 기본이 되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각각 본떠 만들었고, 하늘은 둥글고 [·], 땅은 평평하며 [—],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양[丨]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하여 기본 모음 세 자를 만든 다음, 이들을 결합하거나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모음 열한 자를 만들었다.</p>

	<p>(나)</p> <p>한글의 또 다른 특성은 창제자가 각각의 소리에 대응하여 글자를 만든 후 그것을 조합하여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성을 발휘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하나로 발음하도록 하였다. 통합성은 애민(愛民)이라는 창제자의 철학, 당대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과 음양오행 사상까지 창제에 반영한 데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음운학 이론서는 물론이고 몽골, 여진, 일본 등의 문자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종합하여 우리말에 맞는 문자를 만든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p>
자료 분석	<p>(가)에서는 한글이 문자 창제 과정과 원리가 밝혀진 문자임을 밝히며, 자음의 기본자나 모음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며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한글의 특성으로 ‘독창성’을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창제자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성을 발휘한 한글의 특성을 초성/중성/종성 체계, 철학, 사상, 음운학 이론, 각종 문자 자료 등을 언급하며 밝히고 있다.</p>
[문제 3] 답안작성 [대학 제공]	
①	<p><자료 3>과 <자료 4>는 중시하는 가치관의 내용과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을 비교하면 교사 집단과 석담 선생은 본질적 측면을 중시 여겨 교사는 교육의 본질인 ‘도덕성’, 석담 선생은 예술의 본질인 ‘도’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학생 및 학부모 집단은 교육의 본질인 ‘도덕성’이외의 다른 내용을 더 중시하고, 고죽도 예술의 본질인 ‘도’보다 ‘예’를 더 중시한다.</p>
②	<p>다음으로 가치관의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교사 및 학부모 집단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도덕성’, ‘기본 지식’ 일관되게 최우선으로 뽑는데, 이는 석담 선생과 고죽이 각각 ‘도’와 ‘예’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과 같다. 다만 학생 집단만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집단과 같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개성과 창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p>
[문제 4] 답안작성 [대학 제공]	
①	<p><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각 집단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와 학부모 집단은 과반수가 넘게 학교급과 상관 없이 각각 ‘도덕성’과 ‘기본 지식’을 선택했다. 학생 집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기본지식’이나 ‘도덕성’보다 ‘개성과 창조성’을 중시했다. 교사와 학부모와는 달리 학생들은 <자료 5-가>에서 언급된 한글의 특성으로 말한 ‘독창성’ 즉 ‘개성과 창조성’의 가치를 상급학교일수록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p>
②	<p>한편 다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별로 각 교육목표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하면 초, 중, 고 모두 일관되게 ‘기본지식’, ‘도덕성’, ‘개성과 창조성’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은 다수 의견인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자료 5-나>에서 언급한 ‘통합성’을 반영하여 ‘도덕성’, ‘개성과 창조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균형있게 설정해야 한다.</p>

6) 실전연습4 - 2015 일요일 오전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프레임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5>에 제시된 체이스와 사이먼의 주장을 그래프의 수치를 근거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3>	<p>문학작품이나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아무리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론에 '오염'되지 않은 채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해석은 이미 그 자체로 이론적인 여러 가정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이 이론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내면화하여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가정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가정들은 분명 존재한다.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해석은 결단코 문학, 교육, 언어 및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곧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든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확신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p> <p>아울러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된다는 점이다. 훈련을 통해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은 인간의 경험과 온갖 사상 세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며, 그렇게 되면 문학작품에 담긴 강렬한 밀도와 다채로운 짜임새, 의미의 미묘한 차이들을 한층 더 음미할 수 있다. 이론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p>
자료 분석	<p>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 때로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든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뿐이다.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된다. 이론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다.</p>
<자료 4>	<p>프레임은 인간의 실재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이다. 즉, 프레임은 우리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하고, 사유방식을 형성하며, 심지어 지각 방식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문법 연구에서도 프레임 없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은 기존 연구 프레임에 기대는 대신에 언어 자체의 표현 방식에 집중하여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p>

	<p>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일단 이런 편견이 만들어지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껏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한계가 있더라도 기존 프레임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프레임 없는 문법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해왔음을 보여주려 한다.</p>															
<p>자료 분석</p>	<p>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언어학자는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껏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p>															
<p><자료 5></p>	<p>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 그루트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우수한 체스 명인의 단기기억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체이스와 사이먼은 이 능력이 탁월한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능력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체스 실력에 따라 체스판 위의 말의 위치를 평균 몇 개나 기억해 내는지를 보여준다. 체스판 위의 말의 위치는 게임 상황일 때와 무작위 상황일 때로 나누어지며, 체스 실력은 “하-중-상-명인”으로 구분된다.</p>  <p>The graph shows two data series: '게임 상황' (Game Situation) represented by a solid line with diamond markers, and '무작위 상황' (Random Situation) represented by a dotted line with square markers. The x-axis represents skill levels: 하 (Low), 중 (Medium), 상 (High), 명인 (Expert). The y-axis represents the number of words remembered, ranging from 0 to 25. In the game situation, the number of words remembered increases significantly with skill level, from 4.8 for '하' to 20 for '명인'. In the random situation, the number of words remembered remains relatively low and stable, increasing slightly from 2.5 for '하' to 3.3 for '명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스킬 레벨</th> <th>게임 상황 (기억한 말의 수)</th> <th>무작위 상황 (기억한 말의 수)</th> </tr> </thead> <tbody> <tr> <td>하</td> <td>4.8</td> <td>2.5</td> </tr> <tr> <td>중</td> <td>9</td> <td>2.9</td> </tr> <tr> <td>상</td> <td>15</td> <td>3</td> </tr> <tr> <td>명인</td> <td>20</td> <td>3.3</td> </tr> </tbody> </table>	스킬 레벨	게임 상황 (기억한 말의 수)	무작위 상황 (기억한 말의 수)	하	4.8	2.5	중	9	2.9	상	15	3	명인	20	3.3
스킬 레벨	게임 상황 (기억한 말의 수)	무작위 상황 (기억한 말의 수)														
하	4.8	2.5														
중	9	2.9														
상	15	3														
명인	20	3.3														

<p>자료 분석</p>	<p>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낸다. 체이스와 사이먼에 따르면,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능력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이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p>
<p>[문제 3] 답안작성</p>	
<p>①</p>	<p><자료 3>은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된다고 말한다.</p>
<p>②</p>	<p><자료 4>는 언어학자는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이라고 말한다.</p>
<p>③</p>	<p>따라서 <자료 3>은 프레임을 긍정하나 <자료 4>는 프레임을 부정한다.</p>
<p>[문제 4] 답안작성</p>	
<p>①</p>	<p><자료 5>에 의하면 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낸다. 이는 체이스와 사이먼에 따르면,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능력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이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데 게임의 구조를 인지할 수 있는 게임 상황에서는 체스실력이 올라갈수록 복원개수가 비례관계를 그리고 있었으나, 게임의 구조를 인지할 수 없는 무작위 상황에서는 체스실력에 따른 유의미한 복원개수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p>
<p>②</p>	<p>이는 <자료 3>이 프레임을 뜻하는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체스의 게임구조라는 프레임이 체스 말의 복원개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p>

7) 실전연습5 - 2015 일요일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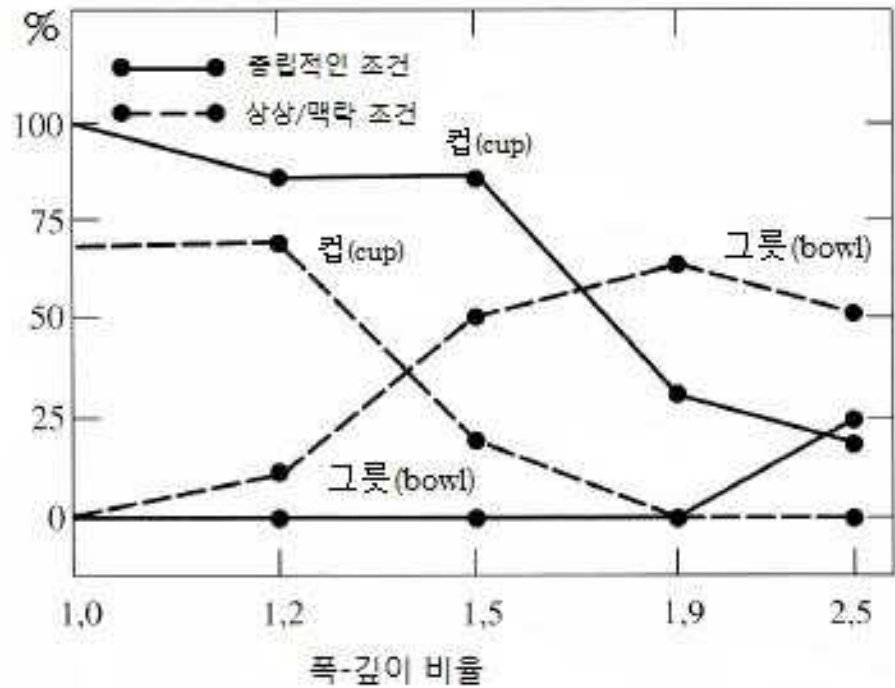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판단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5>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료 3>의 현상을 해석·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p><자료 3></p>	<table border="1" data-bbox="424 477 1331 893">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424 477 778 640" rowspan="2">2013년도 (단위 : %)</th> <th colspan="3" data-bbox="778 477 1331 555">체감 계층</th> </tr> <tr> <th data-bbox="778 555 963 640">고소득층 (0.8)</th> <th data-bbox="963 555 1145 640">중산층 (51.8)</th> <th data-bbox="1145 555 1331 640">저소득층 (47.4)</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4 640 584 723" rowspan="3">OECD 기준 계층</td> <td data-bbox="584 640 778 723">고소득층 (30.8)</td> <td data-bbox="778 640 963 723">0.8</td> <td data-bbox="963 640 1145 723">22.7</td> <td data-bbox="1145 640 1331 723">7.4</td> </tr> <tr> <td data-bbox="584 723 778 806">중산층 (61.9)</td> <td data-bbox="778 723 963 806">0.0</td> <td data-bbox="963 723 1145 806">27.9 <45.1></td> <td data-bbox="1145 723 1331 806">34.0 <54.9></td> </tr> <tr> <td data-bbox="584 806 778 893">저소득층 (7.3)</td> <td data-bbox="778 806 963 893">0.0</td> <td data-bbox="963 806 1145 893">1.3</td> <td data-bbox="1145 806 1331 893">6.0</td> </tr> </tbody> </table> <p data-bbox="424 936 1355 1308"> ※참고 1) < > 안의 수치는 OECD 기준 중산층 중에서 해당 체감 계층의 비중임. 2) 각 수치에는 반올림이 적용됨. 3) OECD 기준 계층이란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분류한 사회경제적 계층으로서 OECD와 한국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임. 4) 체감 계층이란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해당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으로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함. </p>	2013년도 (단위 : %)		체감 계층			고소득층 (0.8)	중산층 (51.8)	저소득층 (47.4)	OECD 기준 계층	고소득층 (30.8)	0.8	22.7	7.4	중산층 (61.9)	0.0	27.9 <45.1>	34.0 <54.9>	저소득층 (7.3)	0.0	1.3	6.0
2013년도 (단위 : %)				체감 계층																		
		고소득층 (0.8)	중산층 (51.8)	저소득층 (47.4)																		
OECD 기준 계층	고소득층 (30.8)	0.8	22.7	7.4																		
	중산층 (61.9)	0.0	27.9 <45.1>	34.0 <54.9>																		
	저소득층 (7.3)	0.0	1.3	6.0																		
<p>자료 분석</p>	<p data-bbox="424 1308 1355 1812"> <자료 3>은 소득기준 OECD 계층과 설문에서 나타난 체감 계층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고소득층의 0.8%만이 스스로 고소득층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22.7%와 7.4%는 각각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생각한다. 공식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는 더욱 심각하다. OECD 기준 중산층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1%에 불과하며, 나머지 55%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여긴다. 반면, OECD 기준 저소득층 7.3% 중 17.8%(전체의 1.3%)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긴다. <자료 3>은 객관적인 소득분류와 주관적 체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각 경제적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만족도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OECD는 소득수준만으로 계층을 정의한 반면, 국민들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자산 수준,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층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p>																					
<p><자료 4></p>	<p data-bbox="424 1812 1355 1971"> 일반적으로 말소리 지각이 청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대면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말소리 지각은 청각뿐 아니라 시각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소리만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조음방법이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눈으로 입 모양을 읽음으로써 </p>																					

	<p>파악할 수 있다. 맥거크 효과 (McGurkeffect)는 사람이 말소리를 지각하는 동안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맥거크 효과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가 서로 불일치되는 조음위치 정보를 주는 자극이 제시될 때 발생한다. 예컨대, 청각적으로 “바”인 소리가 시각적인 입모양이 “가”인 동영상에 더빙된 자극을 보고 들을 때 “다”로 지각된다. 이러한 맥거크 효과는 시각적인 조음위치 정보가 자동적으로 말소리 처리에 통합됨을 시사하고 있다. 맥거크 효과는 서구 문화에서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나, 미국인들에 비해 시각적인 영향을 덜 받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경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보고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중국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에 비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 이 결과는 말소리 지각이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p>
<p>자료 분석</p>	<p>언어사용자는 말소리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청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과 같은 시각 정보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맥거크 효과 (McGurk effect)는 바로 이와 같은 말소리 지각의 특성을 활용해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의 불일치 현상을 조명하고, 이 과정에서 말소리 지각의 주관적 해석을 다루었다.</p>
<p><자료 5></p>	<p>세상에 만족이 있느냐 인생에게 만족이 있느냐 있다면 나에게도 있으리라</p> <p>세상에 만족이 있기는 있지만 사람의 앞에만 있다 거리는 사람의 팔 길이와 같고 속력은 사람의 걸음과 비례가 된다 만족은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다</p> <p>만족을 얻고 보면 얻은 것은 불만족이요 만족은 의연히 앞에 있다 만족은 우자(愚者)나 성자(聖者)의 주관적 소유가 아니면 약자의 기대뿐이다</p> <p>만족은 언제든지 인생과 수적* 평행(曁的平行)이다 나는 차라리 발꿈치를 돌려서 만족의 묵은 자취를 밟을까 하노라</p> <p>아아, 나는 만족을 얻었노라 아지랭이 같은 꿈과 금실 같은 환상이 님 계신 꽃동산에 돌릴 때에 아아, 나는 만족을 얻었노라</p> <p>* 수적(曁的): 마주 서 있는</p>

	한용운, 「만족」
자료 분석	<p><자료 5> 는 한용운의 시작품인 「만족」 인데, 시적 화자는 세상과 인생에 만족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만족이라는 것이 부단히 추구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늘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에 높임으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화자의 결론은 만족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나 성인의 주관적인 것이거나 약자의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화자는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차라리 현재와 과거를 긍정/만족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넷 째 연에서는 (주관적인 또는 깨우침으로서의) 만족을 얻었다고 한다.</p>
[문제 3] 답안작성	
①	<자료 3> 과 <자료 4> 는 모두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현상의 불일치 현상을 보여준다.
②	<p><자료 3> 은 소득기준 OECD 계층과 설문에서 나타난 체감 계층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소득층의 0.8%만이 스스로 고소득층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22.7%와 7.4%는 각각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생각한다. 중산층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1%에 불과하다. 반면, 저소득층 7.3% 중 17.8%(전체의 1.3%)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긴다.</p>
③	<p><자료 4> 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의 불일치 현상을 보여준다. 언어사용자는 말소리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청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과 같은 시각 정보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 그 불일치 정도가 상이했던 것을 볼 때 문화적인 영향 또한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p>
[문제 4] 답안작성	
①	<p><자료 5> 의 시적 화자는 세상과 인생에 만족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만족이라는 것이 부단히 추구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늘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에 높임으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화자의 결론은 만족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나 성인의 주관적인 것이거나 약자의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화자는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차라리 현재와 과거를 긍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p>
②	<p><자료 3> 은 객관적인 소득분류와 주관적 체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각 경제적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다. 만족은 부단히 추구되는 것이기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니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만족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차라리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중산층에 맞춰 긍정하려고 하는 것이다.</p>

8) 실전연습6 - 2015 모의 논술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분석 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4]	<자료 3>의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자료 5>에서 사용된 범주화 방법,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한 방법에 적용하여 상상/맥락 조건하에서 컵과 그릇의 범주화를 제시도해 보시오. (500자 내외)



<자료 3>

※ 실험참가자가 모든 문항에 응답한 것은 아님.

저명한 사회언어학자 Labov는 언어사용자들이 무엇을 ‘컵(cup)’이라 부르고 무엇을 ‘그릇(bowl)’이라 부르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개념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Labov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용기(container) 그림을 보여주고 그것이 ‘컵’인지 ‘그릇’인지 답하도록 했다. 실험에 사용된 다섯 가지 용기들은 깊이에 대한 폭의 비율(폭-깊이 비율)이 1.0에서 2.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그려졌다. 위 그래프에서 실선은 각각의 용기를 ‘컵(cup)’이라 명명한 실험참가자의 비율과 ‘그릇(bowl)’이라 명명한 실험참가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실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폭-깊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컵(cup)’이라고 대답하는 피험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X-축의 우측 끝에 이르게 되면, 폭-깊이 비율이 2.5인데, 이때는 단지 25%의 실험참가자만 ‘컵(cup)’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림에서 점선 그래프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용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용기 안에 으깬 감자가 들어있다’고 상상하도록 지시한 뒤 얻은 결과를 보여준다. 상상/맥락 조건에서는 ‘컵(cup)’이라는 반응이 적어지고, ‘그릇(bowl)’이라는 반응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컵(cup)’에서 ‘그릇

	<p>(bowl)’으로 응답이 점차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사물에 대한 인간의 범주화는 그 속성뿐 아니라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p> <p>- John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p>
자료 분석	<p>‘컵(cup)’과 ‘그릇(bowl)’의 범주화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준 Labov의 실험을 소개한 글이다. 우리는 단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범주화하지만, 각각의 단어가 의도한 범주 항목에 무엇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컵(cup)’, ‘그릇(bowl)’ 같은 사물 이름에 대한 범주화는 대상 사물의 ‘폭-깊이 비율’같은 속성뿐 아니라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달라진다.</p>
<자료 4>	<p>한국인은 범주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그 능력은 기질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인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명세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한다. 그런 기본적인 정보로 상대방을 어떤 범주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불편하다 못해 불안 증세마저 보인다.</p> <p>그런 기질은 편견과 ‘편 가르기’가 발휘되는 토양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속도에 대한 승배는 체질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범주화 게임’은 지속되고 있다.</p> <p>한국인들이 그런 독특한 기질을 갖게 된 것은 인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다. 이는 달리 ‘구별 짓기’를 할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전문가들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를 진지하게 따지는 것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구별 짓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별 짓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욕망이 범주화 게임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어느 범주(편 또는 패거리)에도 속하지 않은 채 홀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p> <p>- 강 준만, 「한국인의 범주화 기질과 본질주의 성향」</p>
자료 분석	<p>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범주화 성향을 비평한 글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은 사람을 만날 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명세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분류한다. 이러한 범주화 능력/기질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높은 인구밀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람을 신상 특징에 따라 범주화하는 기질로 인해 편견과 ‘편 가르기’가 생겨나기도 한다.</p>
<자료 5>	<p>많은 학생과 회사원은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꿈꾼다. 그들은 “마이클 델이 기숙사 방에서 델컴퓨터라는 회사를 시작해 텍사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도 그러한 일을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 델과 같은 성공담은 기업가 정신을 복돋운다. 기업가(entrepreneur)를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혁신적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당 사업체가 혼자 다루기에 역부족이거나 소수의 사람만으로는 운영이 힘들 정도로 크게 되는 경우 기업가는 총괄 경영자가</p>

	<p>된다.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사업체가 성장하여 몇몇 종업원을 두게 되는 경우 경영자가 된다. 자영업자는 심적, 물적 에너지를 자신의 사업체에 쏟아 붓는다. 주목할 점은, 기업가는 자영업자로 출발하지만, 자영업자 모두가 기업가인 것은 아니다. 기업가의 엄격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샌드위치를 파는 프랜차이즈 운영자를 기업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 Andrew Durbin, Essentials of Management</p>
자료 분석	<p>마이클 델과 같은 기업가의 성공을 사례로 사업체 운영자의 유형을 ‘기업가(entrepreneur)’와 ‘자영업자(small-business owner)’로 구분하는 글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업가와 자영업자로 범주화하는 기준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유무’이다. 샌드위치를 파는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자영업자는 될 수 있어도 기업가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부재 때문이다.</p>
[문제 3] 답안작성	
①	<p>1. 범주화 대상: <자료 3>은 폭과 깊이의 비율이 다른 다섯 가지 용기(또는 컵과 그릇), <자료 4>는 처음 만난 사람을 범주화 대상으로 한다.</p>
②	<p>2. 범주화 기준: <자료 3>은 용기의 폭과 깊이의 비율(속성)을, <자료 4>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 명세와 같은 기본 정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p>
③	<p>3. 범주화 효과: <자료 3>의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폭-깊이 비율이 다른 다섯 가지 용기를 일관성 있게 컵과 그릇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즉, 용기들에 대한 범주화는 그 속성과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자료 4>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을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 명세와 같은 기본 정보를 기준으로 범주화함으로써 편견과 편 가르기가 유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p>
[문제 4] 답안작성	
<p><자료 3>의 그래프에 제시된 두 점선은, 폭-깊이가 다른 다섯 가지 용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으깬 감자가 들어있다고 실험참가자들에게 상상하게 한 뒤 컵과 그릇 중 무엇으로 인지했는지 그 반응 결과를 나타낸다. 컵이라고 반응한 응답비율은 깊이에 대한 폭의 비율(폭-깊이 비율)이 1.2인 용기로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9 이상인 용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컵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릇이라고 반응한 응답비율은 폭-깊이 비율이 1.2인 용기로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깊이에 대한 폭의 비율이 2.5인 경우가 1.9인 경우보다 응답율이 약간 적은 이유는 회답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프상 주목할 곳은 두 점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대략 1.4의 폭-깊이 비율을 갖는다. 인간의 반응이 항상 선형적이 아닐 수 있고, 폭-깊이 1.4 비율을 가진 용기에 대해 직접 실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용기에 대해서 컵이라고 명명한 비율과 그릇이라고 명명한 비율이 같으므로, 폭-깊이 비율 1.4인 용기를 컵과 그릇에 대한 인식의 경계점으로 추론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결과를 <자료 5>의 범주화 방법에 적용해 사전적으로 정의해본다면 폭-깊이 비율이 1.4보다 적은 용기는 컵으로, 1.4보다 큰 용기는 그릇으로 구분하는 범주화를 제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p>	